

연구논문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윤흥기

오클랜드 대학 지리학과 교수

1. 들어가기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헐렸다. 그것은 헐려야 하는 건물이었다. 너무 ‘노골적으로’ 한민족의 정기를 (자존심을) 짓밟은 건물이었다. 나는 1995년 8월 15일 이 건물의 첩탑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광화문 앞에서 직접 보면서 박수를 쳤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경복궁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데에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러나 이 건물을 허느냐 마느냐에 대해 말도 많았고, 일부 민간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첩탑을 뜯어내고 나서도 철거 작업이 일 년 이상 지연된 후에야 결국 헐렸다.

조선 태조가 서울로 천도하여 경복궁을 짓게 된 동기, 일본제국주의가 경복궁을 헐고 조선총독부를 지은 동기, 그리고 한국정부가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낸 중요한 동기가 주로 풍수지리설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즉 태조가 풍수가의 말을 받아들여 풍수적 이유 때문에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하여 경복궁을 현재 위치에 짓게 되었고, 일본 식민정부는 조선 왕조 정궁의 풍수맥을 끊으려고 경복궁의 전반부를 헐

어내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었으며, 해방 후 한국 정부는 이 풍수 기를 다시 살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고자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고 경복궁을 복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문화체육부, 1997: 30, 342). 이러한 견해는 공식 출판물에 적힌 것인 만큼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화지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수박 겉핥기 식의 해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태조가 자신의 풍수신앙 때문에, 즉 명당을 차지하여 발복받기 위하여 서울로 천도하여 경복궁을 지었다는 것은 경복궁 경관의 건립과 변천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빙산의 일각과 같다고 본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중요한 이유는 풍수설이 당시 새로 들어선 조선 왕조의 통치이념과 권위를 경관에 표현하여 백성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주도권을 쥔 세력이 자기들의 권위와 이념을 경복궁 주위 경관에 어떻게 표현하여 자연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미 자연화된 문화경관을 어떻게 뒤집어엮었는지를 조선 태조의 한양천도로부터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경복궁 복원까지 한번 훑어보고 해석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경관을 텍스트로 보기

경관을 텍스트로 보기 시작한 근원은 아무래도 자연환경을 하느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일종의 (글자로 쓰여지지 않은) 성경으로 취급하여 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를 알려고 했던 자연신학(physico theology)이었던 것 같다. 최근 문화지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개조하여 만든 경관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관은 단지 보는 것 또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듯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통해 저자가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

이념을 정당화하며 독자들이 받아들일도록 시도하듯이, 지배계층은 그들이 만든 경관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이념이나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백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가 ‘자연’처럼 극히 당연하게 느끼게끔 하는 힘이 경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경관은 사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인 실물상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본다(Duncan & Duncan, 1988: 117; Daniels & Cosgrove, 1988: 1).

서울의 경관은 옛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겨온 풍수지리설의 원전이 경관으로 나타난 좋은 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산이 삼면으로 에워싸여져 있고 평평한 평지가 앞으로 널려져 있으며 그 앞으로 강이나 호수가 있는 것이 좋은 땅이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쪽에는 청룡을 상징하는 산이 있어야만 하고, 서쪽에 백호, 북쪽에는 현무 즉 주산이 있는 삼태기 같은 형태의 분지가 곧 풍수서(geomantic text)에서 말하는 소위 좋은 땅(吉地)이다. 풍수서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길지 모형을 제시하지만 모든 ‘길지’는 대체로 이러한 삼태기형의 지형이 기본이다. 이러한 지형이 남향을 하고 있으면 풍수의 기본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보는데 그 크기에 따라 도시, 시골 마을 터 또는 집이나 무덤 터가 된다. 서울은 이런 풍수적 길지 판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터를 택한 좋은 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 수도로 결정되어 도시경관이 이룩된 배경에는 ‘길지’에 관한 풍수이론이라는 텍스트(바탕글)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경관을 만든 사람이나 그 경관을 읽는 (보는) 사람이, 구전되어 오는 것이거나 문서화된 것이거나 간에 그 경관을 이룩하게 된 원전(text)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초점이 맞춰진 변형’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이러한 경우의 좋은 예가 된다. 왜냐하면 서울은 풍수지리적인 이론에 맞추어 터를 잡았고, 그 이론에 맞도록 경복궁과 시가지를 들여앉혔다는 것을 서울의 경관에서 쉽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지리학자 던칸(J. Duncan)은 텍스트로부터 문화 경관으로 변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초점이 맞춰진 것과 안 맞춰진 것이 있다고 했는데 ‘초점이 맞춰진 변형’이라는

것은 문화 경관의 저자나 해석자가 그 문화 경관의 기본이 된 텍스트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초점이 안 맞춰진 변형’이라는 것은 문화 경관의 저자나 해석자가 볼 때, 그 문화 경관 형성에 영향을 준 텍스트가 한둘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기본 텍스트가 무엇이라고 쉽게 꼬집어 낼 수 없거나, 기본 텍스트가 아예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Duncan and Duncan, 1988: 121).

3. 경관의 자연화와 그 뒤집어엮기에 대한 문화지리학 이론

일반적으로 자연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쉽게 도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은 강의 물줄기를 막아 돌리기도 하고 높은 산을 광물이나 돌을 채집하기 위하여 폭파하고 평지보다도 더 낮은 우묵한 곳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자주 인간이 만들어낸 특정 경관이나 기념비적인 건물들은 주위 자연환경보다도 더 확고부동하게 사람들 마음에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문화경관의 자연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파리의 에펠탑이나 구 시가지 또는 플로렌스의 구 시가지들은 자연 경관보다 더 단단하게 자연화되어 있다. 사실 에펠탑이 없는 파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파리의 에펠탑은 파리의 자연 환경보다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그곳에 그렇게 존재해야만 하고 없애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문화경관이 자연화된 좋은 본보기다.

문화 경관이 어떤 특정한 사회 정치적 이념을 표방한다든지 또는 민족 정기나 민족 자존심을 표현한다고 할 때, 이 경관이 사회 정치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 그래서 어떤 문화지리학자는 사회 정치 변화과정에 있어서 경관이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은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관을 지지, 표방하여 그 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거나 또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왜

나하면, 많은 경우 문화경관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이념 및 생활의 기록인 동시에 사회적 역학 관계가 새겨져 있는 텍스트(문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Duncan and Duncan, 1988: 123).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그 자리로 보거나 또 건물자체를 생각 하던 간에 그 경관이 상징하는 정치적, 이념적 의미는 매우 깊다. 이 의미심장함이 바로 풍수지리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 태조나 일본 식민정부나 그리고 독립 후의 한국정부는 경복궁의 건립과 파괴 다시 총독부 건물의 건립 및 철거를 통하여 각각 자기들 정권을 정당화하고, 상징적인 건물 경관을 통해 그들의 정치이념을 백성들이 주위의 자연 경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도록 시도했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이들은 한결 같이 상징성을 띤 문화 경관을 자연화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 정권이나 정치이념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문화경관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지배세력은 자주 통치 이념이나 수단을 정당화하고, 일반민중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이념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경관을 이룩하여 자연화하려 했다. 문화지리학자 던칸(J. Duncan)은 어떤 경관이 한 가지로만 해석되고 다른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배제되었을 때, 그 경관은 자연화되어(naturalizing landscape)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관들은 기존 지배계층과 그 이념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사고방식에 의하여 다시 해석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관의 변형이나 재해석을 ‘경관의 자연화 뒤집어엮기’라고 한다(Duncan and Duncan, 1988: 123-125). 이렇게 해석을 역전시키는 힘은 거의 폭발적일 수 있다. 옛날 영국이 인도 남단의 세일론(스리랑카) 섬을 점령할 시기에 그곳에 있던 칸딘 왕국(Kandyan Kingdom of Sri Lanka)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당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여 축출해 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Duncan and Duncan, 1988: 121).

문화경관의 ‘자연화’(naturalizing landscape)와 ‘자연화 뒤집어엮기’(de-

naturalizing landscape)현상이 한 문화경관을 통해 반복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문화경관의 상징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물전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복된 세력의 경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념비적 경관을 만드는 방식이다.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개종시킨 다음 그들의 성지에 기독교 대성당을 건축한다는 것이다. 유럽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이교도의 신앙을 정복할 때, 그들의 성지 또는 교회들을 부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교 교회를 짓도록 한 사례는 매우 많다. 이 방법은 새로 들어온 종교로 개종한 신자가 자신들이 가졌던 재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흔히 이용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이교도의 중요한 성지는 곧 중요한 그리스도교 교회 자리가 되었는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플로렌스 대성당이 그 좋은 예다. 새로 들어온 정치 종교와 문화 세력이 일정 지역을 정복하고 난 뒤 기존 세력의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이나 성지를 부수고 자기 것을 그 자리에 짓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둘째는 새로운 통치세력에 정복된 세력이지만 그 힘이 만만찮아서 새 세력이 구 세력이 자연화한 문화경관을 훼손하고 다시 그것을 압도하는 경관을 새로 건설하여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서 구 세력을 모욕하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일본의 경복궁 훼손과 조선총독부 건립이라고 본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자주권의 상징인 왕궁의 전반부를 헐어내고 정복자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 피정복자의 왕궁이 초라해 보이도록 하여, 이제는 새로운 정복자에게 대항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놓은 이와 같은 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셋째는 새로운 통치 세력이 피정복 세력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껴서 피정복세력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경우이다. 피정복민을 위한 이 기념비 경관은 정복자 입장에서 자기들 식으로 자기네 상징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은 오히려 새로

운 통치세력의 통치이념과 권위를 응변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외 나무 산’(one tree hill) 공원이 그 한 보기 일 것이다. 이 일대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유럽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전 옛날에 거주하던 유적지다. 초대 오클랜드 시장이 이 유적지를 구입하여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기증함으로써 이 일대는 문화 유산 보존 차원에서 녹지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산 꼭대기에는 마오리 문화와 마오리 무사(武士)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우뚝 서 있는데, 이 비석은 유럽이주민들에 의하여 건립된 유럽식 기념비인 오벨리스크(obelisk)이다. 멀리서도 보이는 이 우뚝한 유럽식의 기념비는 비록 마오리족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누가 이 땅의 주권을 쥐고 있는가를 응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경복궁과 조선총독부 건물을 둘러싼 경관 변화를 ‘경관 자연화시키기’와 그 ‘뒤집어엮기’에 관한 문화지리학 이론을 통해 정리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 태조의 경복궁 건립으로부터 대원군의 경복궁 복원까지

조선 태조는 왕위에 오르자,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기도 전에, 서둘러 새로운 수도 물색에 착수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때 풍미하였던 풍수지리 도참사상을 이용하여 당시 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든 태조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자연화’된 고려왕조의 상징인 개성의 궁궐을 폐허로 만들고, 새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는 새 도읍과 궁성(문화경관)을 풍수도참사상에 맞추어 건립함으로써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새 왕조를 받아들이도록 시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태조는 계룡산일대, 모악산(지금의 서울 신촌)일대, 또는 한양(지금의 서울 구 시가지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를 검토하고, 계룡산에 신도읍 건설을 시작했다가 다시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하고 북악산 밑에 경복궁을 짓고 개국 2년 만에 천도를 단행한다.

태조의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목자(木子) 성,

즉 이(李)씨가 서울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풍수도참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태조는 수도를 옮김으로써, 자신이 바로 풍수도참에서 말하는 이(李)씨로서 왕이 되어 서울에 정당한 사람이며 이제 그 풍수도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고, 민심을 고려조에서 새로운 조선왕조로 굳히려는 의도가 컸던 것 같다. 태조가 북악산 밑 풍수혈에 경복궁을 지은 것은 물론 자기가 풍수를 신봉하여 발복받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둘러 경복궁을 짓고 수도를 옮긴 더 중요한 의미는 자신이 시작한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가시적 경관으로 표현하여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한편 이병도는 태조가 급히 천도하려고 한 이유는 태조 자신의 미신적 풍수신앙에 기인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순히 王朝 更迭에 따르는 遷都 즉 政治 人心 其他 外觀을 일신하려고 하는 천도로만 생각해서는 그 급히 서두는 眞意가 那邊에 있었는지 잘 모를 것이다. 太祖의 眞意는 그러한 사정보다도 어떠한 神秘的 思想, 속히 말하면 開京이라고 하는 地德 衰敗의 地, 亡國의 基地를 하루라도 속히 피하려고 하는 迷信的 思想, 즉 陰陽地理(風水)적 思想에 拘泥된 까닭이었다(이병도, p.364).

이병도는 그 이유 중 하나로 『태조실록』 1392년 9월 30일의 다음 기록을 들고 있다. 즉 임금이 새로운 도읍지를 찾았을 때 서운관에서 개성 즉 고려 왕실의 도읍지만한 곳이 없다고 하자 임금이 말하길 “망한 나라의 옛 도읍지를 어떻게 다시 쓰겠는가?” 하는 구절이다(이병도, 364).

필자가 보기에는 이 구절조차도 태조의 ‘미신적’ 풍수신앙을 뒷받침한 다기보다는 문화지리에서 말하는 이미 자연화된 문화경관을 뒤엎고, 새 왕조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경관을 하루 빨리 만들어 자연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즉 백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고려왕조의 상징을 폐허화하고 자신의 새로운 왕조의 위엄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도읍과

궁성(문화경관)을 풍수지리에 맞추어 지음으로써 이 새로운 경관의 자연화를 통한 조선 왕조의 당위성을 민중에게 주입시키기를 원했다고 보인다. 태조나 그 당시 백성들의 풍수신앙은 현대인이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태조의 서울 천도와 경복궁 건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풍수지리설은 새로운 왕조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면이 태조 자신의 풍수신앙(발복을 받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면 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쓰여온 경복궁의 동궁이 중종 28년(1532년) 1월에 불에 타 버렸고, 명종 8년(1553년) 9월에는 사정전(思政殿) 등 대궐의 상당부분이 또 불에 타서 잃었다. 이때 명종은 비록 흉년이 들어 나라사정이 어려웠지만 선대임금들이 세운 정궁(先王法宮)을 다시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 복구작업을 시작하였다(백남신, 187). 그리하여 다음해(1554) 4월에 흙경각이, 6월에는 동궁이 지어졌고, 8월에는 사정전, 교태전 등 다른 전각들이 차례로 지어져서 10월에 경복궁 복구공사를 모두 마쳤다(백남신, 1955: 187). 이러한 사실은 명종의 교지(教旨)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나라사정이 어렵지만 당시 왕권의 권위와 정통성이 계속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대임금들이 세운 정궁(先王法宮), 즉 경복궁을 복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태조의 경복궁 건립이 새로운 왕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면, 명종의 경복궁 복원은 왕조의 정통성 계승과 왕권의 권위를 경관으로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복원된 경복궁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이 일본 침입군을 피해 서울을 떠나 피란 가자, 주로 난민들이 중앙관청과 궁궐을 불태워 파괴했을 때 함께 전소되었다(백남신, 187-8). 이는 천대만던 조선사회 바닥계층의 집권계층에 대한 항거이자 보복이었고, 그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여 자기들을 착취하고 천대하던 세력을 상징하는 경관을 뒤집어엎는 행위(denaturalization of landscape)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일본 침입군에게는 자기들의 침략을 변호해주고 조선왕권을 상징하는 경관을 파괴해

버린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다.

폐허화된 경복궁은 1865년까지 270여 년 이상 조선왕조에 의하여 방치된다. 경복궁이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의 상징일진대 그렇게나 중요한 상징적인 궁궐을 왜 빨리 복원하지 않고 임진왜란 후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방치하였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폐허화된 경복궁의 장시간 방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먼저 일본이 자행한 7년간의 침략전쟁으로 당시 조선 사회와 국토가 축발이 되었고, 국력이 쇠약해 있었던 점을 들 수 있겠으나, 중요한 점은 선조가 임진왜란 직후 곧 1606(선조 39)년에 폐허화된 경복궁은 그대로 둔 채 창덕궁을 재건하기로 한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은 태조가 수도를 개성으로부터 서울로 옮겨 새로운 왕조의 위용을 보임으로써 민심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선조는 조선왕조 사상 가장 무자비한 침략을 맞았고 자기 백성에 의하여 방화되어 폐허화된 경복궁을 떠나, 규모가 적어서 공사가 쉽고, 풍수적으로도 북악산의 용맥이 경복궁보다는 오히려 창덕궁으로 내려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복궁 대신 창덕궁을 재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을 상기시키는 경복궁을 폐허로 두고, 원래 별궁인 창덕궁을 먼저 복구하여 정궁같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한 공부는 자료가 부족한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힘들어 다음 기회로 미룬다.) 여기에도 경관의 정치적 이미지 및 상징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창덕궁과 창경궁과 같은 별궁으로는 그 규모로나 풍수적 위치에서나 강력한 왕권을 백성들에게 내보이기가 힘들어 대원군 시대에 와서 정궁인 경복궁 복구 사업을 국력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19세기 초 순조 및 헌종 때 경복궁 중건 계획이 있었으나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 공사착공까지도 가지 못하였다. 1865년 경복궁 복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을 때 일부 정치세력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대원군은 이를 물리치고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도중 두 번이나 당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이 복구공사에 반대하는 부류

의 소행으로 보이는 방화에 공사장 임시건물 및 쌓여 있던 목재가 타서 경북궁 중건공사가 좌절을 맞보았으나 대원군은 이를 강행하였다(백남신, 1955: 346-8). 대원군은 소요되는 목재 충당을 위해 큰 나무면 묘지에 있는 것이거나 민간 신앙의 대상이거나 가리지 않고 벌목하여 씌으로써 백성의 원성을 샀다. 공사비용 조달을 위하여 농지경작물에 부과하는 결두세의 세율을 올리고, 서울의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성문통과세를 받아서 백성의 원성이 더욱더 높아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원군은 당시 정부의 막대한 공사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론 자진상납을 의미하나 실제로는 관작(官爵)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는 원납전을 모았고, 또 실제 가격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불량화폐인 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하여 강제로 유통시켜서 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경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백남신, 1955: 350-6).

결국 경북궁은 거액의 돈을 들이고 총 공사기간 5년 7개월이나 걸려 1868년에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럼 대원군정권은 왜 이렇게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과 모험을 무릅쓰고 경북궁을 중건하였을까? 이것 또한 그 당시 정권을 대표하는 대원군이 경북궁 경관을 복구를 통하여 조선 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이기백, 1990: 343). 세도정치가 오래 계속되어 당시 왕권은 매우 나약해져 있었다. 경북궁 복원 공사를 통하여, 대원군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지도이념을 다시 주장하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여 세도정치 세력의 약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가 처음 지은 경북궁의 웅장한 모습이 복원되었다는 것은 당시 왕권의 정통성 계승을 잘 상징할 수 있었고 강력한 왕권이 재정비되어 구현되고 있음을 웅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북궁 복원 공사는 대원군이 당시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이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2) 일본 식민지시대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후 한국인의 문화정서를 잘 파악하려고 집정 초기부터 한국문화 전반을 속속들이 조사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인의 풍수사상에 대한 조사였다. 그 조사는 村山智順라는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채집, 정리되어 『朝鮮의 風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일본 식민 정부는 풍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경복궁 경관을 훼손하고 궁의 정면 앞에 일본식민 정부의 정착을 상징하는 건물을 세움으로써,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정치이념을 뒤집어버리고 자기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자연화)하려 하였다. 일본식민 통치가 이제 한국에 정착되었다는 것을 한국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본 식민정부는 한일 합병 후 곧 경복궁을 제압하고 식민 통치의 상징인 총독부 건물을 그 자리에 세울 준비를 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건물을 하나 둘씩 헐기 시작하였으나, 다음 두 기회를 빌미로 경복궁을 대거 해체하였다. 첫째는 1915년에 일본의 식민통치 5 개년을 자랑하는 소위 시정 5주년 기념하는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하필 경복궁에서 열기로 하고 그것을 빌미로 근정문 앞 여러 건물을 헐고 박람회장을 지은 것이다. 둘째는 그 뒤 1917년 11월에 창덕궁에서 불이 나 내전이 모두 타는 등 많은 전각이 소실되자, 일본은 1918년에 창덕궁 복구공사에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경복궁의 내전을 위시하여 많은 전각을 헐어 그 자재를 재활용한 것이다 (손정목, 1989: 66-69).

결국 고종 당시의 경복궁의 330여 동(15,600여 평)의 건물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철거되고 오직 36동(2,957평)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문화체육부, 342, 문서, 1). 일본 식민정부는 다 헐어낸 경복궁 터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자기들의 식민정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한 수단으로 경복궁을 훼손하고 그 정전인 근정전을 압도하는 거대한 석조 총독부 건물을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식민정권의 위력을 과시하고 식민 통치를 정

당화하였고 당시 한국인들이 자기들의 통치를 주위의 자연환경과 같이 당연히 받아들일도록 종용하기 위하여 경복궁 경관을 파괴 개조하였던 것이다.

다음 경우를 상상해보자. 미국이나 영국이 외국에 정복되어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의 전반부가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복 세력이 그들의 총독부를 크게 지어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을 가로막고 옛 궁전을 아주 초라하게 대조시킨다면 그것을 보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들이 그 정복 세력을 축출해낼 수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원한의 총독부 청사를 헐어내고 자신들의 주권을 상징하는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을 다시 원상대로 복구하지 않았을까? 한국정부의 구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와 경복궁 복원을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민속학자이며 사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상해보라고 쓰고 있다.

가령 지금 조선이 발흥하고 일본이 쇠퇴하여, 급기야 일본이 조선에 병합됨으로서 궁성이 폐허가 되고, 그 자리에 대신 저 양식의 일본총독부 건물이 세워지고, 저 푸른 해자(濠) 너머 멀리 보이는 흰 벽의 에도성(江戸城)이 헐리는 광경을 상상해주시기 바란다. 아니, 벌써 그 해머 소리를 들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상상해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나도 저 에도를 기념할 만한 일본 고유의 건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야나기 무네요시, 1989: 100).

이러한 방식으로 경관의 상징성을 통한 피정복민 통치에 이용한 예가 일본지배하의 한국 서울에서 일본 식민정부에 의하여 자행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교도의 성지를 부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교 대성당을 짓는 것 보다 더 가혹하게 정복하는 방식이며 피정복자를 조롱하고 고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복자는 피정복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식민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일본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문화 경관을 주위 자연환경처럼 받아

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경복궁을 헐어내고 총독부 건물을 지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 확실한 근거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식의 일본 식민주의 비난이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해석은 안 된다. 그러나 다음 사항으로 비추어볼 때 일본 식민주의의 그러한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 조선총독부 건물의 위치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다른 장소를 거절하고 굳이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것이다. 1911년에 일본 건축가들은 새로운 총독부 청사 부지로 종로구 동숭동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자리와 현재의 서울 시청 자리를 제안했었으나 이러한 제안은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반대했다. 그리고 이토 추타에 의하여 광화문 안 경복궁 터를 새로운 총독부 청사 자리로 정하게 되었다(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1997: 341).

(2) 건물 배치

경복궁 파괴 및 근정전과 총독부 청사의 대조. 일본은 경복궁 근정문 앞의 모든 건물을 철거해내고 그 자리에 거대한 석조 콘크리트 건물을 서양식으로 지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목조인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과 대조시켰다. 월등히 크고 높은 총독부건물은 근정전을 위압하고, 근정전이 왜소한 구닥다리 유물이란 인상을 받도록 건물을 대조 배치한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은 일본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의 근대적 식민정권에 필적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부각하려고 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의 운명은 이제 끝났고, 조선의 건축 규모와 기술은 새로운 일본의 기술과 규모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정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개념이 들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총독부 건물은 경복궁의 근정전을 가로막아 광화문 앞에서 보이지 않게 했고, 새로 지은 총독부 청사에서 내려다보면 근정전이 초라하게 보이도록 구도 배치한 것으로 해석

된다.

경관을 텍스트로 볼 때 그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물체가 항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서만 찾기보다는 그 표현된 상징성이 다른 물체의 상징성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데서 추출된다고 했다(Hawes, 1177; Duncan, 1988: 118).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 왕조의 주권을 상징하는 근정전과 일본의 새로운 식민정부의 상징인 총독부 건물이 어떻게 대조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서 이 경관을 조성한 일본의 진의를 끄집어내 볼 수 있다.

(3) 형태

일본이 지은 조선 총독부 건물은 전통 일본식 건물이 아닌 서양식 건물이었다. 전통 일본식 건물은 일본의 야망, 곧 한국의 일본화를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 내 보일 뿐 아니라, 그 크기와 모양새로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압도하기 힘들다. 그래서 근정전을 압도할 수 있는 서양식 5층 건물을 거대하게 지어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을 일본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려 했다고 보인다.

(4) 위상과 규모

조선총독부 건물은 당시 동양 최대의 근대식 건물이었다. 막대한 재정 지출과 최고의 기술진을 동원하고 정성을 다하여 영국의 인도 총독부나 네덜란드의 보르네오 총독부보다 더 큰, 동양 최대의 근대식 건물을 지은 것이다(문화체육부, 1997: 341). 9,604평의 이 건물은 지을 당시 일본 본토 및 식민지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고 한다(손정목, 1989: 71). 이렇게 큰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의도는 일본의 위대함을 당시 한국인들에게 과시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을 초라한 조선왕조에서 벗어나게 하여 근대화를 시키니 일본 통치자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5) 건물 평면도의 상징성

석조 조선총독부 건물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그 건물은 일본을 상징하는 일(日)자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한국 통치가 이 땅에 영구히 정착되었음을 이 건물의 평면도를 통하여 상징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6) 총독관저의 위치

일본총독의 살림집인 총독관사를 경복궁 바로 뒤에 지어 그의 집무실인 총독부 청사와 함께 상징적으로 경복궁의 근정전을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위치하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다. 풍수지리설을 좀 알고 이 건물경관을 보는 사람들은 경복궁의 풍수맥은 이제 끊겼고, 일본 총독이 사는 관사가 생기를 뉘아채었으며 그 총독의 사무실 건물이 조선 왕궁을 납작하게 눌러 보고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한국사람들이 이 경관을 볼 때 ‘이제 조선왕조는 끝났고 우리는 이제 일본에는 도전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경관을 꾸몄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일본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고 일본 식민주의 이념과 자기들의 통치구조를 경관으로 표현하여 자연화시키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7) 광화문의 해체 이전

조선왕조의 중요한 상징인 광화문이 당시 새로 지은 조선총독부 청사의 위용을 과시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헐어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일본의 사학자며 민속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의 글 “아 광화문이야”에서, “광화문아, 광화문아, 너의 생명이 이미 경각에 달렸구나. 네가 지난 날 이 세상에 있었다는 기억이 차가운 망각 속에 묻히려 하고 있다……”고 하며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결국, 당시 한국사람들의 민족감정을 의식한 총독부는 광화문을 해체해버리는 대신 궁궐 동쪽 벽으로 옮겨지었다.

(8) 언론보도

일본식민정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후 식민정치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소위 ‘시정기념일’인 1926년 10월 1일자 ‘총독부 새 청사 낙성식’에 관한 글에서 당시 한국사람들은 거대한 ‘총독부 새 청사’를 보고 일본식민정부의 업적과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조의 글을 썼다. 그 일부를 보면, “오늘은 시정기념일이다. 때마침 이날에 총독부 새 청사는 그 공사가 완성되고,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시정기념의 이날, 반도 민중이 다 같이 옷깃을 바로잡고 생각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문화체육부, 47쪽에서 재인용). 경성일보의 이러한 논조는 당시 한국사람들은 일본 식민정부에 대하여 반항하지 말고, 이 건물이 표현하고 있는 일본 식민정부의 권위와 정책을 잘 생각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9) 일본인 학자의 비판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본인 학자들조차도 “너무했다. 너무 도발적이다.”라고 평할 만큼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의 잔인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의 글 “아 광화문이여”에서 경복궁을 헐어내고 총독부 건물을 근정전 앞에 짓는 것을 일본과 한국의 국운이 역전되었을 경우를 상상하도록 유도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당시 일본굴지의 건축미학자 今和次郎은 조선 건축학회에서 한 강연 “總督府新廳舎는 지나치게 露骨的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總督府 청사의 맨 처음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 지나 조선민족에게 일종의 惡感情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도리어 總督府 청사로는 그 장소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니 파괴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저만치 올라가버려 파괴해버릴 수도 없으니 뭔가 사회사업을 하는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아니겠습니까(손정목, 90면에서 재인용).

일본 정부가 경복궁을 파괴하고 그 궁궐 전반부에 거창하게 근정전을 가로막아 새로 지은 총독부 건물과 초라하게 남긴 일부 경복궁 경관과의 대조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적 의도를 표현하고 있기에, 이러한 장소선정과 건물배치를 일본인 건축학자는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열거한 증거 및 해석을 종합해볼 때 일본이 경복궁을 헐어 내고 근대 서양식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은 것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한국을 초라하게 대조시켜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일본의 식민 통치는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있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경관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에 항구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근정전-총독부 건물을 둘러싼 문화경관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일본이 이제 한국을 영구히 통치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의 정전인 근정전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대조시켜 자기들의 사회 정치적인 아이콘으로 부각시키고 그 경관을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독립 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를 상징하는 이 건물을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한국사회 일부에서 계속 있어왔다(문화체육부, 341). 이 건물은 6·25때 크게 파괴되었고 그 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건물의 복구공사를 거부하고 파괴하려고 하였으나 국력부족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하지장군 회고록, 손정목, 104면에서 인용). 1962년에 이 건물은 다시 수리되어 한국 정부의 중앙청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철거해야 하느냐, 계속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일부에서는 건축사적 가치를 들어 보존하려고 했

고, 또 일부에서는 일본침략의 상징인 이 건물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철거할 때까지 철거반대 의견 등 많은 의견이 있었다. 서울 지방법원 제50 민사부 “건물훼손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및 그 처리 결과 자료에 의하면,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못 헐게 일부 민간인들이 민사소송을 한국정부와 철거시 공업체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걸었다. 소송 신청이유는 이 건물이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문화 체육부, 368).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에 의하여 1996년 7월 8일 기각되자 이들은 서울 지법 결정사항에 불복하고, 7월 29일 항고하였으나, 그해 11월 18일 항고신청을 취하였다(문화체육부, 366-375). 이러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도하는 상징성을 이 거대한 건물을 지어 표현하여 자연화하려고 한 그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보고 대단한 건물, 기념비적인 건물, 없애서는 안될 건물이라고 생각하게끔 했다는 자체가 이것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 자존의 상징인 경복궁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 민족정기를 짓밟는 식민통치의 상징 건물을 철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철거 찬반 의견의 대립 자체가 이 총독부 건물 경관이 일부 한국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자연화되어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해방 후 한국정부는 처음에 장식이나 벽화나 또는 돌기둥 등에 일본 상징물들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청사로 사용했으나 나중에는 이 건물의 상징성이 마음에 걸려 결국 헐어냈는데 그 과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 처음에는 구 총독부 청사를 개조하지 않고 제헌 국회 개원식이 그 곳에서 열렸고 그후 중앙청으로 쓰다가 1950년 6·25 사변 때 파괴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1962년 수리하여 1983년까지 정부 청사로 써왔다.

② 1962년에 서양식 정문을 헐어내고 광화문을 옛 자리에 복원하였다.

③ 1983~1995년까지 이 건물은 국립 박물관으로 사용되었고,

④ 1991년 1월 노태우 정부는 경복궁 복원 10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해 6월 5일 경복궁 복원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공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⑤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내각에 지시하였고, 1995년 8월 15일 철거 시공식 때 침탑을 떼어내고 해체하였으며 1996년에는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⑥ 1998년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부재를 활용하여 독립기념관 내 서곡 지역에 침탑공원을 조성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구 총독부 청사는 문민정부에 의하여 한국 사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었다. 이때 한국정부의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한 공식 해석이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일제침략의 상징인 구 총독부 청사는 철거되어야 한다

경복궁과 구조선 총독부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문화체육부와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펴낸 구 조선 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민족 감정의 발로와 풍수지리학적 차원에서의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이유에서 해방 이후 줄곧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문화체육부, 341). 그리고 급기야는 1993년 8월 8일, 김영삼 대통령은 심사 숙고한 끝에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내각에 조선 총독부 철거 특별 지시를 내렸다(문화체육부, 344).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볼 때, 분명한 것은 한국정부의 구 조선 총독부 청사에 대한 해석은 일본 식민정부가 그 건물을 통하여 의도한 상징성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근대화의 상징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상징이며, 우리의 민족 정기와 주권을 짓

밟는 건물이기에 헐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하여 구 총독부 청사는 철거되어야 한다

한국의 구 조선 총독부 건물에 대한 해석이 이 건물을 지은 일본 정부와는 상충되어 이 건물은 결국 부서졌다. 그리고 철거된 자리에는 이제 경복궁이 옛날 모습대로 다시 복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현재 기본공제 복원 계획을 보면, 완전복원이 아니고, 고종 당시 330여 동(15,600여평)의 40%인 120동(6,180평) 정도로 복원한다고 한다. 그래도 1990년도 복원작업이 시작되기 전 36동(2980평)만 남았던 것에 비하면 93동(3,223평)이나 더 복원하는 것이다. 이 복원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1,789억원이나 되며 20년이 걸려 2009년이나 마칠 예정이다 (경복궁 복원 정비, 1). 이런 경관변천은 지금 현재 한국이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문화경관을 자연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족 자주성을 올바르게 경관으로 표현하자면 옛날 민족 자주 세력의 상징인 경복궁은 복원 보존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경복궁 주위의 경관은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정치 현실과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실상을 경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과의 관계 역사는 풍수적인 이유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이념이 경관으로 표현되고 그 경관이 자연화 되어 정착되고, 또 자연화된 경관을 다시 뒤집는 한 방편으로 풍수지리설이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조선 태조로부터 일제 식민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복궁 경관이 바뀌어온 것은 민족 상징성과 정치 지배세력의 정당화를 경관으로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경관 전쟁이었고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변천이 글자가 아닌 경관으로 기록된 문서로 볼 수 있다.

셋째, 철거물을 이용하여 역사현장교육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한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금지소송을 신청한 일부 인사들이 이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건물이 일제의 조선 침략과 불법적인 식민지배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의 입장은 철거 후 그 건물의 축소 모형을 독립기념관에 전시하든지 철거물 부재로 역사교훈을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일제의 조선 침략과 불법적인 지배를 잊지 않고, 민족 자존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성)를 상기할 수 있도록 구 총독부 청사 철거물을 이용하여 역사 교육을 위한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문화체육부, 385). 이 공원의 공간구성 계획을 보면 먼저 도입부에서 “철거부재를 이용하여 관람객들이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폐허 속으로 들어가는 전이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 침탑을 중심으로 한 전시공간을 만들었다(문화체육부, 386).

이 전시공간 조성은 일본 식민지정부의 권위의 상징인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이 폐허화된 것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그 중심은 “총독부 건물의 상징물인 침탑을 내려다보면서 역사를 회고하고 관조할 수 있는 영역의 설정”이었다. 그리고 전시공간 중간 중간과 끝 부분에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었다(문화체육부, 386). 이리하여 일본 권력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 꼭대기 침탑은 독립기념관 영내 한 구석에 마련된 공원의 가장 낮은 곳, 반지하에서 못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한국인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높이 올려 있어서 우러러 볼 수 밖에 없었던 총독부건물의 침탑은 이제 이 공원에 가면 누구나 만져볼 수 있고 누구나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원형으로 몇 번이나 포위된 계단 밑에, 못 사람의 발 밑에 놓인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일본지배의 종말과 우리의 민족정신 현양을 관조할 수 있도록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공원을 볼 때 속이 시원한 면이 있으면서도, 일본이 자행한 끔찍하고 가혹한 역사적 행위에 한국이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덜컥터 난다. 이 공원을 만들게 한 원리는 경복궁을 뜯어내고 총독부 건물을 지은 그 원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에는 이로”(tooth for tooth)의 원리를 실행하는 것은 아닌가? 어린아이 싸움 같은 것은 아닌가? 어떤 일본인 건축학자가 구 총독부 청사 부지와 건물 자체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이 ‘노골적’이지는 않은가?

4. 마무리

경복궁을 둘러싼 경관변천은 각 시대의 당시 정권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인 상징물 조성장터였고, 경관으로 표현된 상징물을 ‘세우기’와 ‘부수기’가 교체되는 일종의 상징물 전쟁터였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경관의 상징성과 해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 태조의 경복궁 건립이나, 일본이 경복궁을 짓밟아서 총독부 건물을 지은 것이나, 해방 후 중앙청으로, 국립박물관으로 쓰다가 문민정부 때 철거한 것이나 모두가 경관의 상징성 해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모두가 전 시대(반대세력)의 상징물을 누르고 (없애고) 자기들의 정권과 정치이념을 정당화하는 상징물로 바꾸려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모두를 경관의 자연화와 자연화된 것을 뒤집어엮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풍수지리설은 각 시대의 정권들이 자기들의 정치이념과 정권의 정당성을 경관을 통해 민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뜯어 없애거나 고치기 힘든 경관을 축조하는데 이용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경복궁을 뜯어내고 총독부 건물을 지은 것은 참 가혹한 방법이었다. 한국이 이 건물을 헐고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문화경관의 자연화와 자연화된 것을 뒤집어엮기는 각 시대의 주도권을 쥔 세력에 의하여 똑 같은 원리에 의하여 행해진 것 같다.

기념비적인 문화 경관은 이토록 인간의 이념과 사회 정치상을 상징하고 헤게모니를 쥔 정치세력에 의하여 건설되고 이용되며 그 정치세력을 극복한 세력에 의하여 재해석되고 파괴되거나 재구성된다. 이렇게 엮히고 덮치는 식의 투쟁을 통한 경관 변천을 우리는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구 총독부 건물은 마땅히 헐어야 하는 건물이었고 참 잘 헐어냈다. 노골적으로 한민족의 정기를 짓밟는 건물이었다. 경복궁은 다시 살려내야

한다. 민족정기는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이제 광화문은 민족의 영욕의 상징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원 위치에 바로 서 있는 광화문은 우리가 자주 민족임을 상징한다. 한국의 자주성은 지켜야한다. 그러나 총독부건물의 철거물 부재와 침탑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조성된 공원은 우리 민족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본보다 좀더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윤홍기 hk.yoon@auckland.ac.nz

참고문헌

- 白南信. 1955, 『서울大觀』, 서울: 政治新聞社.
- 李基白. 1990, 『韓國史 新論』, 서울: 一潮各.
- 李丙燾. 1956, 『新修 國史大觀』, 서울: 普文閣.
- _____. 1979, 『高麗時代의 研究』, 서울: 아세아 문화사.
- 야나기 무네요시. 1989, 「아, 광화문이어」, 『朝鮮과 藝術』, 박재삼 옮김, 서울: 범우문고, 99-111.
- 손정목. 1989, 「朝鮮總督府 廳舍 및 京城府 廳舍 建立에 대한 研究」, 《鄉土서울》, 제48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57-136.
- 경복궁 복원 정비, n.p., n.d.
-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 1997, 『舊 朝鮮總督府 建物 實測 및 撤去 報告書 (上)』.
- Daniel, S and Cosgrove, D. 1988, “Iconography and Landscape in Cosgrove,” D and Daniels, S.(eds.),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0.
- Duncan, J.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can, J and Duncan, N. 198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6, 117-126.
- Hawkes, T. 1977, *Structuralism and Semiotics*, Andover: Methuen.